

광주 황사 미세먼지 농도 평상시 10배 '주의' 요구

올들어 미세먼지 주의보 7번 발령... 시민 건강 위협 중금속도 많아... 노약자·호흡기 질환자 외출 삼가야

올 들어 광주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7번 발령되고, 황사도 4번 발생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1일 발생한 황사에서 미세먼지의 최고 농도는 405 $\mu\text{g}/\text{m}^3$ 으로 지난해 평균(41 $\mu\text{g}/\text{m}^3$)보다 10배가량 높았다. 초미세먼지(2.5 μm 이하의 입자상 물질)도 81 $\mu\text{g}/\text{m}^3$ 으로 지

난해 평균(26 $\mu\text{g}/\text{m}^3$)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황사 때 시료를 포집해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철은 2.5860 $\mu\text{g}/\text{m}^3$ 으로 평상시(지난해 평균, 0.3284 $\mu\text{g}/\text{m}^3$)보다 8배, 망간은 0.1504 $\mu\text{g}/\text{m}^3$ 으로(지난해 평균, 0.0135 $\mu\text{g}/\text{m}^3$)보다 11배가량 높았다. 다만 카드뮴과 비소 같은 유해 중금속보다는 지표면에 있는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중금속이 많았다.
또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평상시에는 40~60%이던 초미세먼지 비중이 황사 기간에는 20% 미만으로 나타나 지난해 황사는 토양 입자와 같은 자연 발생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황사 발생시 대처법으로 ▲가급적 외출을 줄이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착용

한 마스크는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1~2일 사용하면 새것으로 교체할 것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귀가해서는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섭취하고,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등 4대 건강수칙을 당부했다.
서광엽 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높을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폐기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질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우치공원, 생태학습장으로 시민과 새롭게 만난다

시, 5년간 150억 들여 노후 사육시설 친환경으로 교체·신축 내달부터 동물 먹이주기·동물원 체험하기 등 프로그램 운영

우치공원이 4월부터 생태학습장으로 시민과 새롭게 만난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우치공원을 시민친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그 첫 시도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4일 광주시와 우치공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노후 동물사를 친환경적으로 교체·신축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사육사와 함께 먹이주기, 수의사와 함께 동물원 체험하기, 동물교실 등 동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운영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사육사와 함께 먹이주기 프로그램은 4~5월과 9~10월 4개월간 사육사의 생생한 동물 이야기와 함께 코끼리, 사슴, 무플론(산양), 영무새, 아기초식 동물 등에게 먹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주말과 공휴일 오후 3시부터 이뤄지며,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또 수의사와 함께 동물원 체험하기는 월 1회(30명) 동물원 수의사와 함께 2시간 일정으로 동물원을 관람하며 개별 동물들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텔링을 듣는 시간으로, 어린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우치공원 홈페이지(<http://uchipark.gwangju.go.kr>)에서 신청받는다.
어린이들이 수의사와 사육사를 체험해보는 동물교실 프로그램은 생생한 동물생태교육으로 여름·겨울방학 기간 내에 각 2회씩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치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회당 참가 인원은 20명이다.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우치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우치동물원은 시민들이 단순히 동물을 보는 공간이었다면, 민선 6기 들어 동물과 얽힌 다양한 이야기 등을 듣고 직접 교감하는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주말 우치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이 사육사의 코끼리 먹이주기 이벤트를 구경하고 있다. <우치공원 제공>

'푸른광주 묘목·퇴비 나누기'

내일 시청앞서 유기질 퇴비 5000포 무상 배분

광주환경공단은 26일 광주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푸른 광주 묘목 나누기' 행사를 열고 시민에게 최고 품질의 퇴비 5000포(1포당 1kg)를 무상으로 나눠 준다.
이번 행사에 환경공단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최고 품질의 유기질 퇴비는 1kg용량 5000포다. 공단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지난 9년 동안 하림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사료를 2014년부터 최종 부산물 1만5000t 중 95%는 사료원료로 유상판매해 연간 4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단은 나머지 5%로 유기질 퇴비 1kg짜리 5만포를 만들어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공단측은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환경생태도시 '푸른 광주'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여성발전센터, 남성요리교실 운영

광주시여성발전센터가 오는 4월6일부터 29일까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요리교실'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만원이다.
강좌는 광주시지정무형문화재17호 남도의레음식장 민경숙씨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총 8회 진행하며 두릅장아찌, 육연근전 등 남도한식요리(1회 2가지씩) 16가지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위로 종주국으로 가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도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